



# GATT와 WTO를 뛰어넘는다

-도하각료회의의 주요 합의사항 및 의미-

도하각료회의에서는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문제와 반덤핑, 보조금협정 등 기존협정의 개정 문제 및 무역 원활화, 소규모 경제와 극빈 개도국 문제 등에 관해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합의사항 및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도하** 각료회의의 합의사항은 회의 종료시 발표된 각료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크게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문제와 반덤핑, 보조금협정 등 기존협정의 개정문제 및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투자, 경쟁정책 등 싱가포르 이슈의 향후 협상계획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협상 및 기타 소규모

경제와 극빈개도국 문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밖에도 각료회의는 개도국에 의해 뉴라운드 출범 반대의 근거로 제기된 이행문제 중 일부의 해결방안에 대한 특별선언과 함께 AIDS, 말라리아, 결핵의 치료 등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개도국의 의약품 접근 강화에 관한 특별선언을 채택하였다.

## 가. 무역자유화

무역자유화는 지금까지 GATT/WTO 하의 여덟 차례에 걸친 다자무역협상에서 예외 없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제기되고 논의되었던 문제이다.

이번 협상의 경우 무역자유화의 대상 분야는 크게 농산물, 비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농업협상과 관련해서는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 및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비교역적 관심사(non-trade concerns)가 협상의 고려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협상일정과 관련, 협상방식(modalities)의 수립은 2003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협상방식에 입각하여 각국은 포괄적 양허안을 제5차 각료회의의 시까지 제출하고 협상의 종결은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의 종결시한과 같이 하기로 하였다.

서비스협상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진행되어 온 협상의 진전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협상을 계속함에 있어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각 회원국의 요청(request)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이에 대한 양허안(offer)은 2003년 3월 31일

까지 제출하도록 합의하였다.

비농산물 즉, 공산품의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고관세 및 경사관세 문제를 포함하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완화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되, 협상대상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선형적 제외(a priori exclusion)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 나. WTO 규범의 개정

규범 개정의 최대 쟁점은 반덤핑협정 개정의 의제 포함 여부로서 과거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미국과 여타국가들간의 첨예한 입장대립이 있었던 분야이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도 미국의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과 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협상을 하되, 다만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과 그 수단 및 목적은 유지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규범 협상과 관련하여 수산보조금에 관한 WTO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되는 기존의 WTO 규정하의 규율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선하기 위한 협상도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의제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 다. 분쟁해결양해와 지적재산권

최근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무역

과 투자가 증대되면서 국가간 분쟁이 증가하고 그 내용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WTO 분쟁해결절차의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분쟁해결양해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되 2003년 5월까지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통보 및 등록과 관련한 다자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제5차 각료회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 라. 싱가포르 이슈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및 무역원활화 문제에 대한 다자협정의 필요성은 이미 UR 협상이 타결된 시점부터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이를 인정하여 지난 각료회의에서는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시작하되 각료회의까지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무역과 환경의 상호보완성을 높이기 위해 WTO 기존규범과 다자간 환경협정(MEA)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서버 자격부여 기준,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비관세장벽

의 완화, 철폐문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되 결과를 예단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무역환경위원회(CTE)는 현재 소관 범위내의 모든 의제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반이사회로 하여금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을 다룰 가장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이를 제5차 각료회의에 보고하고 각료회의 시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유예키로 한 현재의 관행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 마. 작업계획의 조직 및 운영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의 타결 시한은 2005년 1월 1일 이전으로 하며 제5차 각료회의는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침 및 결정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든 분야의 협상 타결시 특별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협상결과 의 채택 및 이행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모든 협상은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를 설치하여 감독하며 TNC는 그 첫 회의를 2002년 1월 31일 이전에 개최하도록 하였다.

특히 분쟁해결양해를 제외하고 모든 협상의 타결 및 발효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하되 조기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조기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바. 도하각료회의의 의미 평가

무엇보다 이번 도하 각료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협상의제 함의를 통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출범 그 자체에 있다.

DDA 협상의 출범은 세계적 경기 침체와 테러사태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경기 회복의 전망을 밝게 하는 한편 세계무역 환경을 크게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간 참여한 이해관계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이번 각료회의를 통해 DDA 협상 출범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무역의 위축 속에서 WTO에 의한 무역 자유화의 절실한 필요에 대해 각국이 공감했고, 둘째 미국 테러사태 이후 국제협력의 분위기가 성숙되었으며, 셋째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무역자유화에 보다 적극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반덤핑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데 있어 다소의 양보를 했다는 사실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DDA 협상을 위해 합의된 의제는 비교적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DDA 협상에 포함되는 의제로는 농산물, 서비스와 같은 기설정 의제는 물론 공산품 무역자유화와 반덤핑 등 WTO 규범분야 그리고 일부 환경분야까지 포함되었고 투자, 경쟁정책과 같은 새로운 의제들도 제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하

기로 함으로써 당초 목표했던 대로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는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회원국간에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농업과 서비스분야는 UR 이전에는 GATT의 예외분야이었고 WTO의 출범 이후에도 자유화 규범이 매우 미진하고 불완전한 분야였던 바, 이제 DDA 협상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지게 되면

‘  
농업과 서비스분야는  
UR 이전에는 GATT의  
예외분야이었고  
WTO의 출범 이후에도  
자유화 규범이  
매우 미진하고  
불완전한 분야였던 바,  
이제 DDA 협상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지게 되면...  
’

WTO 규범의 영역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무역자유화가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각료회의의 최대 쟁점 중의 하나였던 반덤핑 규범 개정의 의제 포함은 최근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에 의해서도 더욱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반덤핑 조치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발동요건을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국제무역의 보호주

의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사. 국제무역 환경의 개선

DDA 협상의 성공적 출범은 그 자체로서 국제무역 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협상 출범은 세계무역에 있어 새로운 자유화의 모멘텀을 마련함으로써 무역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세계 경기의 조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며 WTO의 위상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다자적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무역질서의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1) WTO의 위상 강화

WTO는 당초 목표했던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협상 출범에 실패함으로써 말미암아 보호주의적 조치의 확산에 의한 세계무역 환경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는 한편 WTO 체제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은 바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 확산과 경제 침체라는 도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하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DDA 협상을 계기로 WTO가 관할하는 영역의 확대도 WTO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의제에 대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종결되는 경우 WTO는 전통적인 무역분

야를 망라함은 물론 환경, 투자, 경쟁정책 등의 무역관련 분야들까지 포함하게 되어 실질적인 세계무역 질서의 중심 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될 것이다.

DDA 협상은 이밖에도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의 개선, 지역무역협정 관련 조항의 개선, 강화 그리고 지적재산권 규범의 보완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게 되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무역 환경의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편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가입이 이루어져 WTO 회원국은 144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러시아 등 28개국의 가입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다자기구로서의 WTO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2) 세계경제의 회복**

DDA 협상의 순조로운 진전은 침체에 빠져있는 세계경제의 조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DDA 협상은 세계경제 둔화의 심화, 국가간 통상마찰의 증대, 세계 무역의 위축 등의 도전 요인에 대해 WTO가 시장개방 확대와 새로운 무역규범 제정 및 강화를 통해 다자 무역질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침체된 세계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각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록 최근 무역이 위축되고 있

는 하지만 1990년대에 오면서 세계 주요국의 경우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무역의 성장 기여도는 제고되어 왔다.

따라서 침체된 세계경제 하에서 DDA 협상에 의한 세계무역의 활성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세계경제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 테러사태 이후 항공기 등을 이용한 인적자원의 이동 제약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인한 무역감소 등 전반적인 물류 흐름의 감소뿐



만 아니라 테러사태의 수습 차원에서 각국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가 강화되는 등 세계화 흐름에 대한 제약이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DDA 협상 출범에 따르는 WTO 무역질서는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을 지탱하는 중심 축이 될 것이다.

**(3) 무역자유화의 모멘텀 강화**

DDA 협상의 성공적 출범은 무역 자유화의 모멘텀을 유지,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세계무역은 급격한 위축세

를 보이고 있는 바, 2001년 세계 상품무역량은 2000년에 비해 1~2%의 성장에 머무는 등 그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IT산업의 위축, 미국 및 EU에서의 경기둔화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 그리고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물류의 위축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DDA 협상의 출범은 무역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동인으로서 그 자체로서 무역자유화의 모멘텀 유지,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반덤핑 협정 개정이 협상의 제에 포함됨으로써 최근 선진국은 물론 다수의 개도국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반덤핑 조치의 발동을 제약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반덤핑 조치는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보호주의적 조치로서 규범의 명확화와 그 발동요건의 강화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UR에서 미진했던 농산물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지금까지 농산물 교역을 왜곡시켜 온 수출보조금과 각종 국내보조금이 감축되고 시장접근이 개선됨으로써 농산물 교역이 확대됨은 물론 세계무역의 20% 이상을 점하고 있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미래의 무역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무역이 확대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교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